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6. 25.(목) 조간 < 6. 24.(수) 15:00 >

부산중기청, ‘AX 가속화를 위한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 6.24(수) 웨스틴조선부산에서 ‘제조 AX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 데이터·블록체인·스마트공장 융합사례 공유로 지역 제조기업의 AI 전환 촉진
-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연계 및 네트워킹 기회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청일, 이하 부산중기청)은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와 함께 6월 24일 오후 3시 웨스틴조선부산에서 ‘제조 AX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지역 제조기업의 AI 전환(AX)를 촉진하고 스마트제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기술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산은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등 제조 기반이 두텁고 제조데이터, IoT, AI 품질검사, 자동화 설비 등 스마트제조 공급기업과의 기술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2025년말 기준 부산지역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2,166개사로, 전국 38,611개사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부산지역 스마트 공급기업도 176개사에 이른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중기청,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지역 제조기업 및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기술보증기금 이나영 차장의 '기술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 가치평가에 대한 이해' 발표를 시작으로 제조데이터, 블록체인, 스마트공장 분야별 우수사례 발표와 참석기업 간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 발표 이후에는 참석기업 간 정보교류와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되어, 제조기업의 현장 수요와 공급기업의 기술역량을 연결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청일 부산중기청장은 "제조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설비 개선을 넘어 데이터, AI, 블록체인, 자동화 기술을 어떻게 융합하고 현장에 적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부산중기청은 부산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제조기업이 AX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책임자	과 장	김길상 (051-601-5140)
		담당자	사무관	임종복 (051-601-515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